

‘후후한 교사, 꿈틀거리는 아이들’



가정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총일교회 가정예배부

설교

애들아, 혹시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단어를 외우려고 방 벽에 포스트잇을 붙여 본 적 있나요? 매일 볼 때마다 기억이 더 잘 나지요. 또는 좋아하는 노래 가사를 계속 듣다 보면 저절로 외워지는 경험도 있지요. 우리가 반복해서 보고, 듣고, 마음에 담는 것은 절대 쉽게 잊히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슷한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모세는 백성들에게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발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에발 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즐거워하라고 했지요. 왜 하나님은 돌에 말씀을 새기라고 하셨을까요? 종이나 나무에 쓴 글은 쉽게 닳아 없어지지만, 돌에 새긴 글씨는 오래도록 남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잊지 않고 늘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단순히 머리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이 새겨 삶으로 살아내기를 바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성경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며,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되새길 때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어떤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 알 수 있어요. 친구들과 놀다가 화가 날 때, 말씀을 떠올리면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힘든 일이 생겼을 때도 말씀을 기억하면 용기를 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켜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길잡이예요. 그러니 말씀을 그냥 한 번 읽고 잊어버리지 말고, 늘 마음에 새겨 살아가요.

예배 순서

사 도 신 경 다 같 이

찬 송 예배하는 시간 속에 다 같 이

말 씬 봉 독 신명기 27:1~10절 다 같 이

설 교 말씀을 마음에 새겨요 설 교 자

말 씬 나 눔 다 같 이

합 심 기 도 다 같 이

축 복 기 도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주 기 도 문 다 같 이

★ 찬송과 축복 기도문과 말씀 나눔은 뒷면을 참조해 주세요

★ 합심기도는 가족원들의 기도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주세요.

찬 양

예배하는 시간 속에



▶ 찬양 동영상 바로가기

공동기도문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던 것처럼,

저희 마음에도 말씀을 깊이 새기게 해 주세요.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나눔

1.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에 무엇을 기록하라고 하셨나요?
2.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늘 마음에 새길 수 있을까요?